



작업장 및 실내공간 공기오염물질 중 VOCs와 포름알데히드(HCHO)에 대한 유해성 평가

서종원

•신흥대학 환경위생과(sjw8301@shc.ac.kr)

서론

각종 산업현장에서의 작업자에 대한 유해물질(hazardous substances)의 폭로는 작업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유해물질들로부터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환경장치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수요 또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 실내생활공간에서도 각종 건축 및 설비자재가 고급화됨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유해물질들이 증기 및 가스의 형태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실내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러한 유해물질들은 크게 입자상물질, 중금속의 Fume, Mist, 가스상물질,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이들 중 VOCs와 포름알데히드는 최근 작업현장과 실내공간에서 인체에 노출될 경우 발암성물질로 알려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각 작업장에서는 이러한 유해물질들의 배출을 목적으로 산업환경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산업환경장치는 공기정화장치에 입자상물질을 포집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법의 필터를 사용하거나 유기용제 및 가스의 처리를 목적으로 통합된 가스처리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는 수백종의 VOC 및 유해가스를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유해물질을 취

급시 유해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산업환경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작업장과 실내생활공간에서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유해물질 중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유해성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분류

일반적으로 작업장 및 건설현장, 일상생활에서 주원료 및 제품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VOCs는 크게 방향족탄화수소(aromatic compound)와 불포화탄화수소(olefin compound)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으며, Benzene (C_6H_6) 계열의 유기용제가 대표적인 방향족탄화수소로서 이 물질들의 휘발된 증기가 공기 중에 확산되어 인체에 직접 작용하면 유해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VOCs는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매와 화학 및 제약공장, 플라스틱의 건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ガ스 등까지 매우 다양하며 저비점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탄화수소류들이 거의 VOCs이다. VOCs는 독성화학 물질이고(특히 방향족화합물 및 할로겐화 탄화수소물질), 광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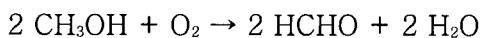


산화물의 작용물질(olefin류의 탄화수소가 광화학 반응성이 큼)로서 성충권의 오존층 파괴물질이기도 하며 또한 지구온난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통상 넓은 의미에서 대기압, 상온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유기화합물질들도 VOCs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 1은 OECD에서 규정한 VOCs의 인위적인 배출원을 나타낸 것이다.

포름알데히드(HCHO)의 성장

포름알데히드는 물에 잘 용해되는 무색의 자극성 기체상태의 물질로 250°C ~ 300°C 상태에서 공기와 메탄올(CH₃OH)을 Cu 또는 Ag망 촉매에 통과 시킴으로써 제조된다.



이때 생성되는 기체상태의 생성물이 물에 용해된 40% 수용액을 포르말린(formalin)이라고 한다. 이러한 포름알데히드는 하드보드, 합판, 접착제, 장식용 판, 테이블 탑, 벽판, 몰딩, 전화기 및 주방용품 등의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고무, 사진필름, 가죽, 폭발물, 염료, 화장품, 부식 방지제, 방부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HCHO의 발생원에 대한 오염정도

포름알데히드는 요소계나 폐놀계의 포름알데히드 합성수지의 생산에 이용되는 중요한 화학물질이다. 이들의 합성수지는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등을 생산할 때 접착제로 사용되며 농축한 요소포름알데히드는 코팅이나 종이의 생산과정에도 사용된다. 또한 가구, 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 수지를 포함하는 텍스타일에서도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절약의 대책으로서 사용된 단열재 UFFI(요소포름알데히드 발포수지)에 의한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과거 UFFI는 미국에서 50

만 가구, 카나다에서 10만 가구의 주택에 사용되었

<표 1> VOCs의 인위적 배출 분류표(OECD)

VOCs sources	details	
Mobile Sources	Road traffic	Passenger cars, Light-duty trucks, Heavy-duty trucks, Motor cycles Gasoline, Diesel, Other fuels (LPG, etc.)
	Other mobile sources	Shipping, Railroad, Air traffic, Off-highway(tractors, etc.)
Power Plant		
Non-industrial combustion	Residential and commercial heating District hea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ndustrial	Combustion Processes Storage and handling	
	Petroleum industry	Refineries Gas and oil production Gasoline marketing
	Chemical and Petrochemical industry	Combustion Process Storage, transfer, handling
	Iron and steel industry	Combustion Process
	Non-ferrous metal industry	Combustion Process
	Pulp and paper industry	Combustion Process
	Other industry	Combustion Process
Organic solvent evaporation	Industrial solvent use	Metal surface coating Degreasing(metal cleaning) Printing and fabric coating Flat wood panelling manufacture Other
	Non-industrial solvent use	Dry cleaning Commercial and domestic painting Other domestic solvent use
Waste and wastewater treatment	Incineration Storage and landfill Waste and wastewater treatment	
Agriculture and food industry	Food industry	Fermentation process Vegetable oil extraction Other
	Agriculture	Open burning Fertilizers Animal farming(manure)
Natural sources	Forests	

<표 2> 자재별 HCHO의 발생량

시료	발생량
책(두께 2 cm)	1.1 μg/책/h
샌들	1.1 μg/족/h
아동용 운동화	1.6 μg/족/h
사무실 카펫	0.2 μg/ 00㎠/h
천정재(불연성)	0.3 μg/ 00㎠/h
베니아합판	18.0 μg/100㎠/h
보통합판	8.3/100㎠/h
천연목화 합판	10.7 μg/100㎠/h
특수가공 합판	3.9 μg/ 00㎠/h
특수가공 폴리에스텔 합판	10.7 μg/100㎠/h
담배	107 μg/개피



으나(turiel)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에너지 절약대책에 따른 환기량 감소와 HCHO 발생량의 증가라는 2가지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표 2는 일본에서 측정된 각종 건축자재의 HCHO 발생량을 나타내었다(長田).

인체에 미치는 영향

HCHO의 영향

포름알데히드 수지에서 발생된 포름알데히드 증기는 일반인에게 발생되는 중요한 노출인자 중의 하나이다. 사람이 포름알데히드에 단기간 노출되면 눈, 코, 기관지에 심한 자극을 느끼며 두통, 어지러움, 눈물을 흘리게되고 장기간 노출된 경우는 피부에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및 습진을, 호흡기계에는 기침, 가래, 천식, 만성 기관지염 등의 폐쇄성 폐 증상을 일으키며, 생식기에 대한 영향으로는 자연유산과 저체중아 출산, 임신증독증 등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동물실험 결과 발암성을 지니고 있다고 밝혀졌으며, 만성적으로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사람은 구강암과 다발성골수종, 비강암과 부비강암의 이환율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포름알데히드를 실내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은 현재 개발되지 않았으며 주로 환기장치를 이용하

여 배출시키는 방법이 작업장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 주거환경에서도 포름알데히드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VOCs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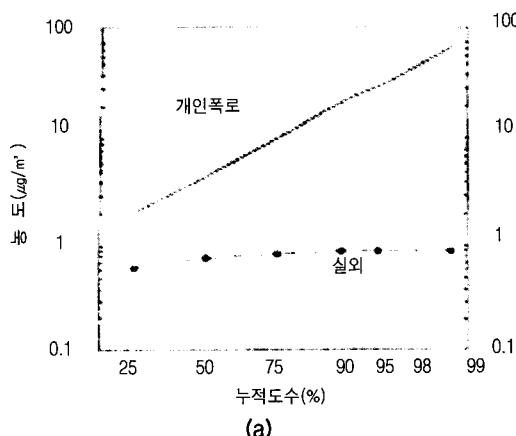
많은 종류의 VOCs가 실내공기 중에 확인되고 있으며 그 종류로는 지방족이나 방향족의 탄화수소, 염화탄화수소, 케톤류, 알데히드류 등이 포함된다. 이들 중 벤젠, 테트라크로로에틸렌 등은 발암성 물질로 구분되며 최근 구미에서는 VOCs가 SBS(빌딩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로 판명되는 상당수의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여러형태의 실내공간에 존재하는 VOCs의 인체에 미치는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림 1은 미국의 단독주택과 고층빌딩을 대상으로 실내 거주자의 VOCs에 대한 개인폭로농도의 누적도수분포를 측정한 예이다 (Wallece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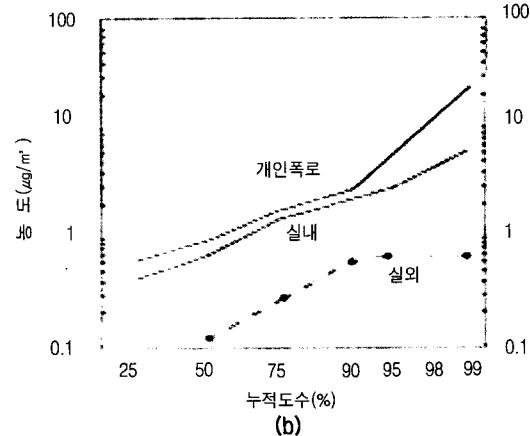
VOCs와 HCHO의 발생량 및 규제

VOCs

미국 EPA에서는 VOC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여 규제하고 있다.



(a)





집중기획 산업유해물질 제어기술

대기 중에서 태양광선에 의해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 산화반응을 일으켜 지표면의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스모그현상을 일으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다. 대표적인 물질들로서 벤젠, 톨루엔, 프로판, 부탄, 헥산 등 318종의 물질과 이들 물질이 포함된 진증기압(true vapor pressure : TVP)이

<표 3> 사무실내의 VOCs 발생원과 종류

발생량		성분									
나무바닥 왁스		1,4-디에틸벤젠, 부틸벤젠, 데칸, 1,2,5-트리메틸벤젠									
카페트세제		1-노넨, 에틸벤젠, 자일렌, 리오넨									
천정세제		방향성을 가지는 수용액									
세라믹바닥의 세제		리모넨, P-시멘, 운데칸, α -피넨									
돌바닥의 세제		리모넨, P-시멘									
책상세제		헵탄, 운데칸, 노난, 데칸									
유리용세제		헵탄, 암모니아									

<표 4> 접착제 사용 작업장의 VOCs 농도변화(환기자동)

조건	작업자 위치(책상위 0.3 m)					작업자 1 m후방(바닥위 1.2 m)					작업자 2 m후방(바닥위 1.2 m)				
	사이 클로 헥산 ppm	아세톤 ppm	초산 n-부틸 ppm	메틸 이소 부틸 케톤 ppm	톨루엔 ppm	사이 클로 헥산 ppm	아세톤 ppm	초산 n-부틸 ppm	메틸 이소 부틸 케톤 ppm	톨루엔 ppm	사이 클로 헥산 ppm	아세톤 ppm	초산 n-부틸 ppm	메틸 이소 부틸 케톤 ppm	톨루엔 ppm
작업 중	—	—	—	—	—	—	—	—	—	—	—	—	—	—	—
	2	1	—	—	—	2	—	—	—	—	—	—	—	—	—
	2	8	—	3	—	3	2	—	—	—	2	8	—	—	—
	<1	9	—	6	—	2	—	—	3	—	3	1	—	—	—
	1	12	—	<1	—	—	—	—	—	—	<1	8	—	—	—
	<1	1	—	—	—	3	10	—	—	—	2	8	—	—	—
작업 후	2	7	—	3	—	<1	2	—	—	—	3	2	—	—	—
	<1	2	—	—	—	2	7	—	—	—	2	10	—	—	—

<표 5> 접착제 사용 작업장의 VOCs 농도변화(환기정지)

조건	작업자 위치(책상위 0.3 m)					작업자 1 m후방(바닥위 1.2 m)					작업자 2 m후방(바닥위 1.2 m)				
	사이 클로 헥산 ppm	아세톤 ppm	초산 n-부틸 ppm	메틸 이소 부틸 케톤 ppm	톨루엔 ppm	사이 클로 헥산 ppm	아세톤 ppm	초산 n-부틸 ppm	메틸 이소 부틸 케톤 ppm	톨루엔 ppm	사이 클로 헥산 ppm	아세톤 ppm	초산 n-부틸 ppm	메틸 이소 부틸 케톤 ppm	톨루엔 ppm
작업 중	3	9	—	—	—	2	8	—	—	—	<1	2	—	—	—
	3	13	—	—	—	3	12	—	—	—	3	11	—	—	—
	4	12	—	4	—	5	17	—	6	—	4	15	—	5	—
	5	15	—	3	—	6	21	—	4	—	5	16	—	4	—
	5	16	—	5	—	5	16	—	5	—	4	12	—	3	—
	5	19	—	5	—	5	18	—	6	—	5	19	—	3	—
작업 후	6	20	—	5	—	7	24	—	8	—	6	22	—	7	—
	4	16	—	4	—	5	17	—	6	—	5	18	—	—	—

1.5psia 이상인 석유화학제품 및 유기용제 등으로 정의한다. 단 메탄, 에탄, 메틸클로라이드, 메틸클로르포름, 클로르플로르탄소류 및 페플로르탄소류 등의 화합물을 제외한다.

유럽의 경우는 레이드증기압(reid vapor pressure)이 27.6 kPa(4.01 psia) 이상인 석유류 제품을 VOCs로 규정하고 있으며 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하고 있다.

독일에서 수집된 VOCs의 주요 발생원을 보면 표 3과 같다.

일본은 미국과 거의 같은 정의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기화합물질 중 메탄을 제외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VOCs에 대한 배출량 기초조사를 하여 실내 및 작업장의 VOCs 농도를 관리하고 있다.

표 4, 5는 일본의 한 페인트 도색작업장에서 발생

작업장 및 실내공간 공기오염물질 중 VOCs와 포름알데히드(HCHO)에 대한 유해성 평가

되는 VOCs 농도의 변화를 환기시설 가동 유무에 따라 측정한 예이다.

현재 국내 환경부에서 규제대상 VOCs로 고시하고 있는 물질(환경부고시, '98. 7.1.)은 레이드증기 압, 광화학반응성, 물질사용량, 발암성 등 유해성을 감안하여 31개를 선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앞으로 규제대상 물질을 점차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다. 표 6은 국내에서 규제하고 있는 31종의 VOCs 물질들이다.

HCHO(포름알데히드)

건축마감재, 접착제용도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두통, 빙혈, 기침, 천식, 신경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건물증가로 인하여 본 물질에 대한 사용에 대한 수요처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제반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는 '98년 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시 특정 대기유해물질로 확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도 개정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대기 환경보전법상 포름알데히드의 배출허용기준은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2 ppm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작업장과 실내생활공간에서의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노출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TLV(threshold limit value) 위원회에서는 포름

〈표 6〉 국내의 규제대상 VOC 물질 (31종)

Acetaldehyde	Acetylene	Acetylene dichloride	Acrolein
Acrylonitrile	Benzene	1,3-butadiene	Butane
1-butene, 2-butene	Carbon tetrachloride	Chloroform	Cyclohexane
1,2-dichloroethane	Diethylamine	Dimethylamine	Ethyl alcohol
Ethylene	Formaldehyde	n-Hexane	Isopropyl alcohol
Methanol	Methyl ethyl ketone	Methylene Chloride	Methyl tertiary butylether
Propylene	Propylene oxide	1,1,1-trichloroethane	Trichloroethylene
Gasolin	Naphtha	Petroleum	

알데히드를 1981년 발암성추정물질(suspected carcinogen, A2)로 제안한 이래 계속 그 기준을 낮추어 왔으며, 1989년 동물실험과 역학조사를 기초로 발암성 추정물질로 규정하고 극한값(ceiling)을 0.3 ppm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는 잠재적 발암성 추정물질로 시간 가중 평균치(time weighted average, TWA)는 0.016 ppm, 극한값은 0.1 ppm으로 더 낮게 권고(NIOSH, 1994)하고 있으며, 1992년 미국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서는 허용기준을 시간 가중 평균치 0.75 ppm, 단시간 노출 허용농도(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2 ppm(OSHA, 1989)으로 낮추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산업안전 보건법상 발암성 추정 물질로 되어 있으며, 특정화학물질 제 3류로 TLV-TWA 1 ppm, TLV-STEL 2 ppm, TLV-C 2 ppm으로 규제하고 있다.

〈표 7〉 HCHO의 각국기준

국 가	기준값 (ppm)
한 국	2 이하
미 국	캘리포니아
	미 네 소 타
	워스 콘 신
덴 마 크	0.12
네 덜 란 드	0.1
스 웨 텐	0.4~0.7
독 일	0.1
미 국	(OSHA)
	작업환경기준 3.0(TLV-TWA) 5.0(TLV-C)



표 7은 HCHO에 대한 각국의 규제기준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실내생활공간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으며 여러 형태의 건물내에서의 실측자료가 전무한 실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맺음말

국내의 작업장과 건축물의 실내공기에 배출되는 특정 유해물질 중 VOCs와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기준값에 비해 3~5배 가량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이들 유해물질의 농도는 최소 1~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저농도 상태가 되는 것으로 외국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또한 VOCs와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유해성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 물질들의 실내농도의 분포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VOCs와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할 수 있는 복합적인 환기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작업장과 대다수 실내공간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의 건강을 발암성 물질인 VOCs나 포름알데히드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작업장과 실내생활공간에서 VOCs와 포름알데히드의 발생과 거동에 관한 기초조사가 전무한 국내의 사정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연구와 기

술적인 측정 DB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유해물질 제거용 환기시스템 설계 및 제어 운용기술을 개발하여 작업장 및 실내공간에서 발생되는 발암성 유해물질이 제거된 깨끗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국민보건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그 결과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는 대단히 클 것으로 예측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최종욱 외, 2000, 도장시설에서의 배출량 산정 조사연구, 보건환경연구논문집, 36, pp. 233~238.
2. 박미진, 2001, 실내공기오염의 메카니즘, 동화 기술, pp. 45~50.
3. Colin Baird, 1997, Environmental Chemistry, W.H. Freeman & Co., pp. 82~85.
4. Stephen K. Hall, 1994, Chemical Safety in the Laboratory, Lewis Publishers, pp. 11~37.
5. Harold F. Hemond & Elizabeth J. Fecchner, 1994, Chemical Fate and Transport in the Environment, pp. 272~296. ●